

제3차 서울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용)

회의명	제3차 서울기록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기관	서울기록원(기록정책과)
일시	2023. 6. 28.(수) 14:00~16:20
장소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5층)
참석자	<p>총 1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위원(7) : 최연희(위원장), 김시덕(부위원장), 김지현, 박지영, 유호선, 전진한, 최호진 - 당연직위원(1) :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 배석자(6) : 윤정훈 기록정책과장(간사), 서수련 주무관(서기), 유숙현 보존서비스과장, 김필래 운영지원과장, 정찬홍 주무관, 김희진 주무관
진행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안건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 인사말씀 - 안건별 설명 및 위원 토론 - 마무리말씀 및 폐회
상정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기록원 3개년('24년~'26년) 마스터플랜(가칭) 수립 2. 민간기록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위원제안 안건) 3. 서울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대한 규정(안)
회의결과 (주요 지문 내용)	<p>[안건1] 3년간 달성할 핵심 과제를 설정할 필요</p> <p>[안건2] 민간기록 및 민간의 기록활동과 서울기록원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 저변 확대 방안 모색 필요</p> <p>[안건3] 저작권 관련 내용 보완 필요</p>

주요 발언내용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및 배석자 소개 ○ 10명 위원 중 8명 위원 참석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 안건 및 회의 진행 순서 안내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못 뵙는 아쉬움이 있으니 이번 회의에서 귀한 의견 많이 주시길 바람

< 안건1: 서울기록원 3개년('24년~'26년) 마스터플랜(가칭) 수립 >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기록원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 연구용역 수행 기관에서 전문가 자문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공부가 필요했음. 서울기록원도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 번째 안건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간사의 설명 요청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설명(붙임 안건자료 참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계획에서 서울기록원의 비전과 목표는? ○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현황은?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기록원이라는 목표를 개원 당시 부터 유지해왔음 ○ 내부 직원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SWOT 분석 및 업무별 추진계획을 고민해왔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원의 관할기관이 어디이며, 관할기관 기록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 및 규정이 있는가?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64개 기관을 관할하고 있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도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관할범위로 포함하고자 함 ○ 관할기관 기록관리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한 의지와 노력에 놀람 ○ 개원 5년차임에도 여전히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홍보가 더 필요

	<p>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및 서울시 문화기관을 활용하여 시민 왕래 많은 곳에 순회전시를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박물관에서도 순회전시가 활발한데 인지도 제고에 효과가 좋음 -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보여주기보다,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발굴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다각적인 홍보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원 유튜브 채널 운영이 점점 저조함.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협정 등의 방안 활용 필요 ○ 은평구라는 접근성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남에 소재한 기관과의 협력 전시(문화원, 구청 등) 등의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주변부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더욱 중요함. 주 1회라도 유튜브 운영하길 바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로 인식하는 것인지 궁금함.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상 많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연예인을 활용하거나, 청도문서고를 활용한 콘텐츠도 좋을 것임 ○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입지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개관 초기 홍보가 잘 되어 입소문이 나고 지명도가 높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원’이라는 딱딱한 법률용어가 아닌, 쉽고 친근한 명칭으로 작명할 필요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더 멧(MET)라는 애칭으로 친숙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전시가 기록원 내에서만 전시되어 많은 이들에게 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 시민청 등 활용하면 훨씬 호응이 좋을 것임 ○ 은평구 갈현1동 재개발 구역 기록화 활동이 KBS에 소개되어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음. 서울기록원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라도 할 필요가 있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철역사(예: 강남역 등)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샷 게시 시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 등도 타 문화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효율적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의 전시를 준비할 필요 없고, 핵심적인 기록을 선별하여 선보이

	는 형태도 충분함(예: 여의도 개발계획)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함. 본격적인 전시가 아닌 6장 내외의 카드뉴스 등 가벼운 형태(팝업 개념)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 서포터즈 등 대중이 참여하는 기획이 필요함. 다양한 시도들을 해가면서 경험을 쌓아갈 필요 ○ 버스정류장 등도 활용할 수 있음(예: 이달의 독립운동가 콘텐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라는 건 많은 노력이 필요한 큰 업무이기 때문에 기록원에서 정말로 홍보에 대해 절실함이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관은 알지만 서울기록원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인지도에 대한 아쉬움이 절실함 ○ 3개년간의 핵심과제를 선택과 집중으로 설정하고 달성해나가고자 함 ○ 3개년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계속해서 구하고자 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개년의 핵심과제를 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 ○ 경남기록원의 5개년 수립 과정에서도 핵심 과제를 정하는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음. 경남은 민간기록 관련하여 별도의 조례가 있으며,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에 우선순위를 두었음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부족으로 연구용역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직원, 관할기관, 시민, 사업팀 등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에 대한 인터뷰와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시각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계획이 어느정도 수립되면 단계마다 위원회의 서면 자문 등을 구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중으로 계획 수립을 완성하고자 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에는 외부의 시각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기관 자체적으로만 수립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자문하도록 하겠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중에 보존서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횡성 수장고는 활용이 불가능한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원 내에 서울역사박물관 수장고가 있는데, 이 자료들은 횡성에서 보존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수장고를 기록원으로 내어주지 못하는 상황임

< 안건2: 민간기록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위원제안 안건) >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시민 기록활동가 발굴을 해왔지만 언젠가부터 보이던 얼굴만 보이는 경향이 있음. 관성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나친 정치적인 경향성을 가진 활동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팩트 체크를 하여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도록 할 필요 ○ 시민단체와 시민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한 단체가 과잉대표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내부에서는 인물 발굴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니 정보 공유를 요청 드림 ○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시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취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기록원 개관식에서 서울에서 기록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음. 가까워서 기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먼곳에서 우연히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음. 민간의 네트워크 자체는 자발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첫 자리를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취지였음. 만남 이후 네트워크가 구성·유지될 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민간에 달려있음 ○ 민간의 성격을 가진 서울기록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연내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임. 또한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그간 발굴한 다수의 기록활동가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이 자리를 공유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임. 이후 만약 민간기록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위원회가 어느정도 협업하는 역할을 하여 의견을 교류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기록페어에 이들이 자체적으로 꾸리는 섹션을 열 수도 있을 것임 ○ 기록원이 ‘구성·관리’ 하는 단체를 구성하자는 의미가 아님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를 개최한다면 공모의 형태로 패널을 초청하는 편이 나을 것임. 특정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름. 만약 민간기록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위원회와는 특별히 연결되지 않았으면 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기록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므로, 제도권에 포섭이 되면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동시에, 점조직처럼 활동하는 개인과

	<p>단체들 간 네트워킹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적정선에서 조화를 이룰 고민이 필요함</p>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록의 소식을 접할 창구가 없음. 각자 SNS에서 알리는 수준인데, 이것을 기록원에서 직접 모으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가능하기도 함. 민간영역에서의 기록활동과 소식을 각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함(예: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자발적으로 공유되는 소식과 활동들을 정리하여 기록원에서 주기적으로 아카이빙하면 의미가 있을 것임. 본인도 개인적으로 SNS 계정등을 통해 정리하고 있지만 휘발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록관리의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가장 본연의 기능일 것임. 홍보나 인지도 등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기록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할기관의 기록관리를 위한 지원과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록원-기록관간의 협조체계가 중요하며, 자치구, 학교 등 각급 기관의 기록 역량을 다지기 위한 부분이 필요. 자치구와의 연합전시 등도 추진하면 좋을 것임 ○ 서울기록원은 기록활동가를 발굴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록’을 발굴, 수집,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함.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인프라, 규정, 목록, 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렵지만 중요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시정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역할일 것임 ○ 수집대상 주제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서울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자료임. 기업사료에 대한 수집과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서울소재 기업에 대해서라도 서울기록원에서 수집해주었으면 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에 산업과 관련한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기록’에 대한 부분은 서울기록원 설립 당시부터 기관의 목적이자 명분이었음.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음 ○ 기록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서울기록원의 당연한 역할임 ○ 공공기록 이관에 집중하는 국가기록원과 달리 서울기록원은 시민영역

	<p>의 ‘수집’ 또한 기관의 중요한 목표임. 이런 목표의식을 놓치지 않았으면 함. 이를 간과하는 경우 국가기록원과 다를 바 없어지게 되고, 타 지자체에서 지방기록원을 설립할 유인이 되지 못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지역 내에서 호응이 매우 크며, 필수적인 지역 복지로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음. 기록원도 그런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있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도서관에서 지역 기록활동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서울기록원이 이런 지역 도서관, 주민센터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기록관과의 연계, 협업 체계가 된다면 좋을 것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록 관련 강의 요청을 받게 되는데 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크게 세 영역으로, 첫번째는 도서관의 주민 기록활동 양성, 다음으로 문화재단에서의 도시재생 지역 기록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의 기록화 사업 등이 그것임. 이런 민간에서의 움직임이 최근 꽤 활발한데, 기록활동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한 것이었음 ○ 민간기록에서는 기록의 주체는 민간이었으면 함. 서울기록원(기관)이 시민을 기록 수집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함. 수집 이전에 기록화가 필요하며, 시민이 스스로 기록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활동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 될 온라인 창구의 필요성은 공감함.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민간의 기록활동을 하는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교류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는 합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방법 등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됨 ○ 민간기록 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기록원 SNS 등을 통해 가볍게 모아서 동향 소개해줄 것을 제안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기관에서 게시판을 운영하지만 조금만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스팸 등으로 폐허가 됨.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함 ○ 게시판 이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에서 하는 활동이 민간에게 간섭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영역이 서울기록원의 사명 중 하나인 만큼, 민간기록물, 민간 기록 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동 주민센터 앞의 게시판에도 반드시 공식적인 구정·동정 소식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며, 주민 자체의 활동과 행사도 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홍보할 수 있음. 이런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제안한 것이었음 ○ 오늘은 민간기록활동 ‘네트워크’가 아닌, 민간기록활동 자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정리하겠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활동을 하는지 궁금했고 알고 싶었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원이 수년간 이런 활동들을 직접 탐문하여 발굴해왔음. 다만, 그 개인과 단체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특정한 사업 기반으로 활동이 이루어져 활동이 종료되면 주체들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어, 기관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어려움. 그래서 자발적인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제안한 것임

< 안건3: 서울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규정(안) >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설명(붙임 안건자료 참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수집 경향이 ‘기증’에서 ‘위탁’으로 옮겨가고 있음. 기관이 개인의 기록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존·관리를 도와준다는 개념임. 따라서, 위탁기간을 지나치게 한정할 필요없이 열어둘 필요가 있으며, 기증(위탁)신청서 내의 대상기록물 목록 등 기재에 대해서도 기증자(위탁자)가 작성에 부담이 되지 않게 배려할 필요가 있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 사례가 있는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추모기록 등 위탁 관리하고 있음. 이 기록물의 위탁기간을 ‘(가칭)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때’까지로 정한 사례도 있음 ○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 기록물 수집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다 유연한

	업무를 위해 내부규정으로 먼저 정하고자 함
위원	○ 서울시정 관련 퇴직 공무원, 교수 등이 자료를 대학도서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 성격상 기록원이 더 적절한 경우를 보아왔음.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으면 함
위원	○ 기관이 위탁 받는 경우 ‘수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적절해 보임. 용어에 대해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 사소한 것이 향후 법률적인 분쟁이 될 수 있음
위원	○ 현재 조문의 문구로 보았을 때 수집의 주체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음. 규정 앞부분 ‘정의’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제5조 수집기록화 부분은 수집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12조 뒤에 오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 디지털화와 매체변환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도 좋을 것임 ○ 저작권 관련하여 규정된 부분이 없음. 협약서 서식에서든, 규정 본문에서든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명시할 필요 있음. 필요시 타 기관 자료관리 규정을 참조하면 좋을 것임
위원	○ 서울시 내의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임
위원	○ 저작권 관련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예: 이용허락, 2차저작권, 다중배포권 등)
위원	○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대통령 사진을 학생으로부터 건네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과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해 1년간 다툰 적이 있음. 저작권, 활용 관련 사항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이며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위원	○ 소유자와 기증자가 서로 다른 경우 기증받은 자료에 대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여러 사례에 대비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원	○ 사진과 필름을 서로 다른 기관에 기증하는 사례도 있음
위원	○ 기록물이 아닌 자료를 동시에 기증할 경우 나머지 자료를 반환할 것인지, 함께 받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정해야 할 것임
위원	○ 제12조 조문 중 구술채록, 기록생산의 조건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단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기록화의 방안으

	로 기록생산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런 단서규정이 기록생산에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함
위원	○ 구술 관련해서는 서울역사편찬원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
위원	○ 국회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구술사업과 기록화 등을 하고 있음
위원	○ 제5조(수집기록화)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남길 것인지가 중요함. 구술채록에 있어서도 어떤 메타항목을 작성했는지가 기록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침. 지금 당장 규정에 포함시키진 않더라도 양식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위원	○ 규정 제정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 별표의 평가기준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위원	○ 내부방침을 통해 바로 제정하고자 함 ○ 개인적으로는 희소성이나 대표성 등이 중요하지 않을지, 활용성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위원	○ 훼손 우려로 기증하는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것임. 대상 기록물 수증 여부에 대한 위원회 소집 이전에 기록원 자체에서도 어느정도 평가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간사	○ 별표의 기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제시된 어느 한가지의 기준으로만 수집 결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할 것임
< 마무리말씀 및 폐회 >	
위원장	○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위원별 자문의견서에 작성 바람 ○ 이상으로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음